

## 결 정

2018 - 3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중 순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8년 1월 16일자 「비트코인 광맥 20%도 안 남아...회소성에 가격 더 오를 것 vs 한계 봉착 진단 엇갈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비트코인 광맥 20%도 안 남아...회소성에 가격 더 오를 것 vs 한계 봉착 진단 엇갈려 박지은 기자 기사승인 2018. 01. 16. 17:28	비트코인 광맥 20%도 안 남았다..."추가채굴 더 어려워져" 송고시간   2018/01/16 16:57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의 남은 채굴량이 전체의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대표적 가상화폐로 꼽히는 비트코인(BTC) 중 채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채굴하는 일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회소성 때문에 비트코인 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자체 한계 때문에 결국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p>16일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총량인 2100만 BTC 중 이미 채굴된 분량이 지난 13일에 80% 선인 1680만 BTC를 넘어섰다.</p>	<p>16일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총량인 2천100만 BTC 중 이미 채굴된 분량이 지난 13일에 80% 선인 1천680만 BTC를 넘어섰다.</p>
<p>앞으로 채굴이 추가로 가능한 비트코인의 분량은 420만 BTC 미만으로 떨어졌다.</p>	<p>이에 따라 앞으로 채굴이 추가로 가능한 비트코인의 분량은 420만 BTC 미만으로 떨어졌다.</p>
<p>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 총량이 2100만 BTC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상한을 둔 것은 비트코인의 '통화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는 설계였다.</p>	<p>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 총량이 2천100만 BTC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상한을 둔 것은 비트코인의 '통화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는 설계였다.</p>
<p>비트코인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발생한 거래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인증하는 '블록'이라는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p>	<p>비트코인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발생한 거래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인증하는 '블록'이라는 단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p>
<p>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새로 생겨나서 이 블록을 만든 구성원이 갖게 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블록을 만든 구성원이 그 대가로 거래 당사자(송금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미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넘겨받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총량에는 영향이 없다.</p>	<p>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새로 생겨나서 이 블록을 만든 구성원이 갖게 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블록을 만든 구성원이 그 대가로 거래 당사자(송금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이미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넘겨받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총량에는 영향이 없다.</p>
<p>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만들어질 때는 블록당 50 BTC가 채굴됐으나, 블록이 21만개 늘어날 때마다 채굴로 발행되는 블록당 비트코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블록당 비트코인 채굴량은 2012년 11월에는 25 BTC, 2016년 7월에는 12.5 BTC로 떨어졌으며 2020년께는 6.25 BTC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에는 단계마다 대략 4년이 걸린다.</p>	<p>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만들어질 때는 블록당 50 BTC가 채굴됐으나, 블록이 21만개 늘어날 때마다 채굴로 발행되는 블록당 비트코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블록당 비트코인 채굴량은 2012년 11월에는 25 BTC, 2016년 7월에는 12.5 BTC로 떨어졌으며 2020년께는 6.25 BTC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에는 단계마다 대략 4년이 걸린다.</p>

<p>비트코인의 발행 가능한 총량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이 2100만 BTC다.</p>	<p>비트코인의 발행 가능한 총량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이 2천100만 BTC다.</p>
<p>이미 채굴된 1680만 BTC 중에서도 300만 BTC 이상이 저장소가 파괴되거나 분실되거나 이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리는 등 일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p>	<p>이미 채굴된 1천680만 BTC 중에서도 300만 BTC 이상이 저장소가 파괴되거나 분실되거나 이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리는 등 일로 사라져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p>
<p>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 경제시스템내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사태가 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가 성장에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p>	<p>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 경제시스템내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사태가 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가 성장에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p>
<p>2100만 BTC로 설정된 비트코인의 발행 가능한 총량을 증가시키려면 50%를 초과하는 사용자가 이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p>	<p>2천100만 BTC로 설정된 비트코인의 발행 가능한 총량을 증가시키려면 50%를 초과하는 사용자가 이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p>
<p>일부 사용자들이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갈라져 나가서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쓰기로 약속하는 '하드포크'를 할 경우 새 가상화폐의 발행 총량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기존 비트코인의 발행 총량이 바뀌지는 않는다.</p>	<p>일부 사용자들이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갈라져 나가서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쓰기로 약속하는 '하드포크'를 할 경우 새 가상화폐의 발행 총량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기존 비트코인의 발행 총량이 바뀌지는 않는다.</p>
<p>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16010009050">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16010009050</a></p>	<p>solatido@yna.co.kr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138100017.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138100017.HTML?input=1195m</a></p>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1월 16일 16시 57분에 송고한 「비트코인 광맥 20%도 안 남았다…"추가채굴 더 어려워져"」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제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